

‘19년 불치병’ 장남 인공호흡기 떼낸 아버지의 눈물

“비정한 父情이라 하겠지만 차마 그 고통 볼 수만 없어”

광주 북부경찰, 살인혐의 입건 조사

“불쌍한 내 아들, 몸속 병에 걸린 데다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란 병원이 아닌 집에서 곁에 보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들(28)이 뇌사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뒤 광주북부경찰에 자수한 윤모(51·당양군 창평면)씨는 9일 “미안하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라는 말만 되뇌었다.

윤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한 것은 한 달 전쯤. 큰아들이 열 살이던 지난 1988년 “진행성근이영양증”(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힘겹게 걷는데 왔는데, 지난날 11일 그만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지고 나서다. 윤씨 자신도 5개월 전 위암 수술을 받아 더 이상 아들을 돌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먹어서는 안 될 ‘독한 맘’을 먹게 된 것이다.

큰아들이 발병 이후 19년간 윤씨가 걸어온 길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근육이 점점 오그라들어 나중엔 걷지도, 말하기도 못하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윤씨는 희망을 가지며

▲안락사(安樂死·euthanasia)=생존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진행성근이영양증(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근육이 점차 변성·위축되어 가는 유전성 희귀질환. 초기 유년기부터 골격 등이 점진적으로 약화돼 영구적 신체장애를 동반하며 호흡기 이상 등 합병증으로 20~25세에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아들을 돌봤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995년엔 막내 아들(24)도 형과 같은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윤씨는 부인과 함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던 한편, 쉬는 날이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보양식을 구하고, 좋은 의사를 수소문했다. 수십 곳의 병원, 수백가지의 민간요법을 동원해봤지만, 큰아들은 지난 2000년부터는 혼자서 겨우 조차 힘들어했다.

힘든 생활은 가정 불화로 이어졌다. 아내(50)와 딸(26)이 2004년 어느 날 집을 나갔다. 그래도 윤씨는 두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간병했다.

윤씨는 사고가 났던 지난날 11일 오전 10시 30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큰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소리였다. 부랴부랴 광주시 북구 두암동 K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뇌사상태라고 진단했다.

윤씨는 “그만 보내자”고 날마다 담당의사(42)를 졸랐다. 하지만 의사는 “공활이나 심장이 아직 살아있다”며 안락사시키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윤씨는 8일 오전 11시 의사가 말리는데도 자기 손으로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다, 깜짝 놀란 간호사가 ‘보호 호흡장치’를 달아줬지만, 30분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윤씨는 곧바로 시신을 화장(火葬)하기 위해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을 찾았지만 사망진단서에 사망경위가 나와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북부경찰서 두암지구대에 자수했다.

경찰은 윤씨를 살인혐의로 불구속 입건,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

■ 안락사 관련 국내외 판례

한국, 살인죄 원칙 가족 고통 감안 집유 외국, 벨기에·네덜란드에선 합법 인정

국내에선 법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락사를 요구한 가족과 담당의사는 살인 또는 살인장조 혐의로 처벌된다.

가장 대표적인 ‘안락사 논쟁’은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사건. 지난 1997년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58)

씨는 아내의 요구로 퇴원해 숨졌다. 대법원은 당시 퇴원을 허락한 의사 2명에 대해 살인 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지난 2004년 6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딸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

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최병근 변호사는 그러나 안락사의 경우 살인행위가 명백하다라고 ▲오랜 기간 동안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낮은 회생 가능성 ▲보호자의 정서적 고통 등을 감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에 선고를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는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오리건 주만이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의사의 수동적인 안락사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일본뇌염 긴급 방역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시 동구청이 9일 수거통에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대우일렉트로닉스 집단 식중독

구내식당 점심 50여명

광주의 대기업 직원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9일 광산보건소에 따르면 광산구 잠곡동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직원 50여 명이 심한 설사와 복통 등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들 직원 중 대부분은 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집으로 돌아갔으나, 나머지 5명은 증세가 심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직원들은 8일 구내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햄 오므라이스·된장국·김치 등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위락 급식업체로부터 식재료와 가검물을 채취,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인한기자 ahj@kwangju.co.kr

양식 돌돔 2만여 마리 폐사 여수 ‘적조 피해’ 여부 긴장

여수 해역 일원에 올해 들어 첫 적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대규모 양식 어류 집단폐사가 발생해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면 두라리와 돌산을 송도 지역 양식장 3곳에서 돌돔 2만여 마리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그러나 여름철 이맘때 돌돔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리도 바이러스’ 발생 시기와, 적조경보 발령 시기가 겹쳐 있어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피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리도 바이러스’는 해수 온도가 섭씨 20도를 넘어서는 6~10월경 발병하며, 감염된 돌돔은 색 색깔이 검어지고 심한 빈혈증상을 보이는데다 치료법이 불가능해 ‘바다의 구제역’으로 불리고 있다.

집단지사 피해 발생 지역인 여수시 돌산을 군내리에서 화정면 화태에 이르는 어류양식장 주변에 적조 원인 생물인 코롤로디니움 밀도가 m당 최고 6천500~7천 개체에 달해 지난 8일부터 적조 경보가 발령됐다.

여수시 등 관계당국은 9일 하루 동안 적조 밀도가 높은 돌산을 송도 인근 양식장을 중심으로 황도 120여를 살포하는 등 실질적인 방제 작업에 나서고, 돌돔류의 집단폐사에 따른 정확한 피해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

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서 지난 7일 오후 6시를 기해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쪽 끝~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까지 20km 해역에 걸쳐 올 들어 처음으로 적조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9일에는 동쪽으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등대 종단까지 경보 발령 지역을 확대했다.

한편 적조주의보는 코롤로디니움의 밀도가 m당 300개체 이상, 그리고 적조경보는 m당 1천 개체 이상이면 발령된다. 지난해에는 적조로 인해 여수해역에서 참돔, 돌돔 등 7만7천 마리 폐사해 3천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특수 콘택트 렌즈이용 시기 도박

○카드 도박을 하던 40대가 400여만원을 잃자 사기 도박을 의심, 경찰에 자진신고하는 바람에 일행 6명이 모두 벌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3) 등 6명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두암동 K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속칭 ‘바둑이’ 카드 도박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

○정씨의 신고로 도박장을 덮친 경찰은 함께 있던 신모(51)세의 눈과 몸에서 콘택트 렌즈 4개와 카드를 발견.

○신씨는 지난 5월 서울 청계천 상가에서 50여만원을 주고 콘택트 렌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 렌즈가 카드 패를 투시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마트에 ‘쇠뿔’ 투척 농민 2명 사전영장

광주 서부경찰은 9일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마트에 쇠뿔을 투척한 가톨릭농민회 광주시지부 사무국장 양모(42)씨와 강진군 농민회원 장모(35)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날 1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차평동 롯데마트 상무지점에서 세숫대야에 미리 준비한 쇠뿔을 투척하는 등 마트의 업무를 1시간 이상 방해한 혐의다.

한편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본부’와 농민회원 등 300여 명이 9일 오후 4시 롯데마트 상무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민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인한기자 ahj@kwangju.co.kr

◇ 시사만화 ‘나원참’과 ‘공일 만평’ 작가 휴가로 16일까지 쉽니다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12개월~5회 시험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12개월~5회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2차(회계회계) 주말반(토일) 시험일: 10월21일

● 모집대상
▶ 혼인중 또는 혼인후 1월 이내 이혼한 여성인 분
▶ 성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인 분 40세 이상인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7기시험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료 100~80% 환급

● 접수
▶ 수강필자: 혼인상당→혼인상당간행서 작성→혼인기간에 재혼→수강

● 합격후
▶ 취업률 100% 보장

● 모집과정
▶ 정보화기초/과정보 원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틸리티활용
▶ 정보화기초/과정보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모집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 7기시험
▶ 수료료 100% 환급

● 접수
▶ 수강필자: 혼인상당→혼인상당간행서 작성→혼인기간에 재혼→수강

● 수업시간
▶ 월수강료 19:00~21:00(7/2) ▶ 화수강료 19:00~21:00(7/1)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60, 232-1088

특보: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7·9급 공무원 대특강

일세무직 2700명 공채 9월 6일 시험(1200명 모집) (사상초우)
채 9월 2차: 내년 초(1500명 모집 예정) (대모집)

全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개강 8월 16일
南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해 하반기 시험 주야반 모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kimyong.co.kr
그동안 강의를 들은 12만여명 합격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개강 8월 1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김영면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

제1회 경찰청 공인자격 인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1회시험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다!
21C 최고의 전문유망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 자격증

1. 시험일정: 2007년 10월 14일
2. 원서접수: 2007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3. 시험장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광주전남지부
4. 응시자격: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학력: 경력: 제한 없음
5. 시험과목: ○ 시사목
○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법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 운전자
○ 2차시험
○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현실무

이런분은 꼭 응시하세요
■ 교통관련 법규에 종사하시는 분
■ 전문직(중개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에 종사하시는 분
■ 취업, 개인을 준비중인 남·여 주부
■ 노후복지 및 사회보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무등고시와 함께라면 합격은 쉬워집니다.

| | |
|-----------|-------|
| 평일반 | 월·수·금 |
| 주말반 | 토·일 |
| 개강 8월 11일 | |

무료 공개 강좌
교통사고 조사론(강좌)
합격에 필요한 자료 및 비법 공개

★ 원서접수대행: 8월 2일 ~ 31일까지 ★
※ 출제 위원급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로 최다합격자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 무등고시와 함께하는 합격강좌
• 1,2차 기본해설교재 및 적응문제집 제공
• 출제위원급 교수진들의 1,2차 합격보장강좌
• 예습 복습 실무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 매주 명쾌한 강의 및 적응문제풀이
• 등록과 동시에 1,2차 교재·문제집 1,2차 동영상 강좌 즉시제공
• 시험직전 모의고사 실시

◆ 명문고시합격의 전통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kimyong.co.kr ☎ 227-8088

www.kimyong.co.kr ☎ 227-8088

www.kimyong.co.kr ☎ 227-8088